

문 1. 다음 어느 국가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국가를 옳게 설명한 사람을 고른 것은?

영역에는 고구려 유민과 원래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갑	중앙 정치 조직은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여 2성 6부제를 운영하였다.
을	말갈을 복속하고 고구려 옛 땅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병	독자적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	고구려를 계승하여 주작대로를 건설하였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적중 PONT!!]

■ 교재명: 한영 기초 한국사 35페이지 298~300번

한영 한국사 1권 155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②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선왕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렀다. 당시 발해의 영역은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영흥 지방에까지 이르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 ① 발해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과 6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37쪽 316번, 한영 한국사 1권 160쪽)
③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왕권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한영 한국사 1권 106쪽)
④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한영 기초한국사 58쪽 534번, 한영 한국사 1권 233쪽)

정답 ②

문 2. 다음 제시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 ① 원시적인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다.
② 무덤 양식으로는 독무덤 양식이 등장하였다.
③ 뚝배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④ 족장이 출현하여 스스로 선민사상을 주장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12페이지 55, 58, 59번

한영 한국사 1권 49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①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4, 5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 움집의 중앙에는 화덕이 위

치하였고,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옹관묘)등이 만들어졌다. (한영 기초한국사 15쪽 84번, 한영 한국사 1권 66쪽)
③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뼈 도구와 뚝배기(타제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골각기와 뚝배기는 구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다.(한영 기초한국사 10쪽 40번, 한영 한국사 1권 41쪽)
④ 청동기 시대에 정치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5쪽 86번, 한영 한국사 1권 60쪽, 61쪽)

정답①

문 3. 다음 중 고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효는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②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③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과 함께 산학을 가르쳤다.
④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1권 206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① 의상의 대표적인 저서인 <화엄일승법계도>는 화엄사상의 요체를 제시한 책이다.
②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는 수도에 태학(太學)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한영 기초한국사 25쪽 191번, 52쪽 463번, 한영 한국사 1권 218쪽)
③ 신문왕은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년)<논어>와 <효경>은 필수과목이고, 3경과 <예기>·<문선>·<춘추전> 등 6과목에서 과정보로 2과목을 선택하였다. 그밖에 산학박사(算學博士)와 조교 1명을 두어 특수한 기술분야인 수학(數學) 등의 과목도 부수적으로 부과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34쪽 281번, 한영 한국사 1권 221쪽)
④ 원성왕 때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임용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유학지식을 독서 실력에 의해 상·중·하의 3등급과 5경 3사와 제자백가서에 능통한 특품으로 나누어 채용하였다. (한영 기초한국사 52쪽 469번, 한영 한국사 1권 221쪽)

정답①

문 4. 다음은 조선 초기의 두 정치 세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 성리학 이외 불교·도교·풍수지리·민간신앙을 포용하였다.
(ㄴ)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이단으로 배격하며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 ① (ㄱ) 관학파의 주장을 계승하였다.
② (ㄱ) 척신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③ (ㄴ) 사학파를 계승하였으며 의리와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④ (ㄴ) 성종 무렵 처음 등용되어서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112페이지 168, 16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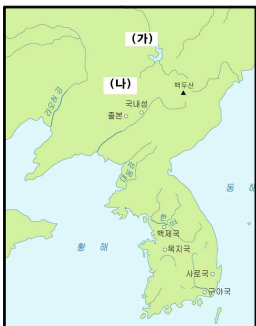
한영 한국사 1권 453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② 선조 때 사람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는데, 서인은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람으로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 ①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들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 신앙 등을 포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세조의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인 훈구 세력은 조선 초기에 이들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11쪽 1154번, 154쪽 1613번, 한영 한국사 1권 447쪽)
- ③ 고려 말 온건 개혁파로 길재에서 비롯된 사학파의 학문적 전통은 성종 때에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계승하였다. 이들은 의리와 도덕을 숭상하고, 왕도주의를 내세웠다.(한영 기초한국사 154쪽 1616, 1617, 1619번, 한영 한국사 1권 446쪽)
- ④ 선조가 즉위하면서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람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한영 기초한국사 112쪽 1167번, 한영 한국사 1권 453쪽)

정답 ②

문 5. 다음 지도의 (가)와 (나) 국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제사장인 천군이 관할하던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고 신지·견지 등이 정치적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 ② (나) 특산물로 말, 주옥, 모피가 생산되었다.
- ③ (가) 부족장을 가(加)라고 불렀으며 왕권이 미약하였다.
- ④ (나) 씨족사회의 풍습으로 족외혼이 이루어졌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21페이지 137번

한영 한국사 1권 84페이지, 100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③ 고구려는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大加)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연맹왕국은 왕권이 미약하여 제한된 지배력만 갖고 있었으며, 왕이 국가의 모든 영역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족장 세력과 나누어 다스렸다.
- ① 삼한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으며, 한편으로 제사장인 천군(天君)과 신성 지역으로 소도(蘇塗)가 있었는데,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한영 기초한국사 22쪽 159, 160번, 한영 한국사 1권 93쪽)

- ② 부여의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8쪽 117번, 한영 한국사 1권 82쪽)
- ④ 동예는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이는 씨족 사회의 유風に 해당된다.(한영 기초한국사 22쪽 152번, 한영 한국사 89쪽)

정답 ③

문 6. 다음의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실록>-

- ① 사병을 혁파하였다.
- ②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다.
- ③ 왕실과 종친들을 등용하였다.
- ④ 유향소를 복립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106페이지 1120번,

107페이지 1104번

한영 한국사 1권 431페이지 사료, 427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③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 체제를 다시 6조 직제 제로 고쳤으며, 태종 이후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던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 ① 태종은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06쪽 1092번, 한영 한국사 1권 424쪽)
- ② 세종은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한영 기초한국사 106쪽 1095번, 한영 한국사 1권 425쪽)
- ④ 성종 때 사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향소가 부활(1488년)되었다.(한영 한국사 1권 428, 438, 447쪽)

정답 ①

문 7. 다음의 이론을 지향한 인물로 옳은 것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나라의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정신만은 독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통사>-

- ① 한민족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에 종속되어 전개되었다.
- ② 손진태 등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를 위해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 ③ 우리나라도 세계사와 동일하게 고대·중세 등의 발전 과정을 겪었다.
- ④ <조선사연구초>를 지어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문 10. 다음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중임제한 철폐 조항을 명시한 개헌안을 반올림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ㄷ.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ㄹ. 마산에서 시위 도중 숨진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면서 촉발되었다.

- ① ㄴ-ㄱ-ㄷ-ㄹ ② ㄱ-ㄴ-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ㄱ-ㄷ-ㄹ-ㄴ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400, 403, 420, 429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ㄱ.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라는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1954)에서 개헌안이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개헌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ㄴ. 3.15 마산 시위(1960)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4월 11일 마산의 중앙부두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2차 마산 시위가 전국적인 국민 시위로 확대되어, 4월 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쏠기하였다.
ㄷ. 유신 체제 하의 8대 대통령 선거(1972.12)와 9대 대통령 선거(1978.7)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 의해 단독 출마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ㄹ. 8차 개헌 헌법에 따라 실시된 12대 대통령 선거(1981.2)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민주 정의당의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정답 ②

문 11. 다음의 선언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 선언-

- ①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②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 전화가 개설되었다.
③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다.
④ 금강호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462페이지 사료, 452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지문 ③을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정답은 ①

- ① 김대중 정부(1998~2002) 때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2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노무현 정부(2003~2007) 때인 2004년부터 개성에 남한 기업이 입주하여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 이후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전화 가설되었고, 공식 대화기구로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한영 한국사 2권 456쪽)

- ③ 전두환 정부(5공화국, 1981~1987) 때인 1985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어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5년만인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고, 이후 직접 상봉과 화상 상봉 등 총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었다. (한영 한국사 2권 458쪽)
④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 가운데 먼저 해로관광을 시작하여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한영 한국사 2권 462쪽)

정답 ①

문 12.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셈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女紅)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 수공업자)이 도야(陶冶: 기술을 익힘)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학의>-

- ① 신분에 맞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②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③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분한 뒤 1구역은 공동으로 수확하여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선을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164페이지 1736번 사료

한영 한국사 1권 682, 683페이지 사료

■ 정답 및 해설 :

- ④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저술한 <북학의>에서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제는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 ① 유흥원(1622~1673)은 군전론에서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62쪽 1712번, 한영 한국사 1권 675쪽)

- ② 박지원(1737~1805)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으며, 한문소설인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작품을 통해 양반을 풍자함으로써, 각종 사회부조리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64쪽 1730번, 한영 한국사 1권 682쪽)

- ③ 정약용(1762~1836)은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정전제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전제를 수정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영 기초한국사 163쪽 1720번, 한영 한국사 1권 677쪽)

정답 ④

문 13.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여 조선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묘청이 승리했다면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나아갔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천년래 조선사의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않으랴.”

-<조선사 연구초>-

- ①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
- ③ 몽골은 고려의 고유한 주권과 풍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진골 귀족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68페이지 648번 사례

69페이지 649번

한영 한국사 1권 291, 293페이지 사례

■ 정답 및 해설 :

- 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이후 문벌 귀족 지배 체제의 모순은 더욱 깊어졌으며, 이자겸의 난과 함께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신라 하대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38쪽 327번, 한영 한국사 1권 165쪽)
- ③ (* 지문 ③의 ‘인정하지 않았다’ 부분을 ‘인정하였다’로 볼 때)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이후 오랜 전쟁 끝에 결국 1259년 원종은 몽골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몽골은 고려를 완전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끈질긴 저항이 안겨 준 결과였다.(한영 한국사 1권 314쪽)
- ④ 통일 이후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34쪽 276번, 한영 한국사 1권 148쪽)

정답 ①

문 14. 다음 제시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해공왕 780년 본기에 적힌 바에 의하면,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4월에, 상대 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병력을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난병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삼국사기>-

- ① 6두품 세력은 왕권과 결합하여 귀족을 견제하였다.
- ② 상대등보다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③ 지방의 호족과 6두품이 연계되어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 ④ 강한 권력을 장악한 왕은 귀족세력을 숙청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39페이지 332번 사례

한영 한국사 1권 162, 166페이지 사례

■ 정답 및 해설 :

- ③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인 96각간의 난이 시작되어 결국 해공왕이 살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780)하면서 신라 하대 사회가 전개되었는데, 이후 6두품과 선종 승려들은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 ① 신라 중대에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고 6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 보았다.(한영 기초한국사 34쪽 282번, 한영 한국사 1권 148쪽)
- ② 신라 중대에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한영 기초한국사 34쪽 275번, 한영 한국사 1권 158쪽)
- ④ 신문왕(681~692)이 즉위하던 해에 왕의 장인 김흠돌의 모역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많은 귀족이 관련되어 있어서 귀족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다.(한영 기초한국사 34쪽 277번, 한영 한국사 1권 150쪽)

정답 ③

문15. 다음 시기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명분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동화시켰다.
(나) 일본 황제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였다.

- ① 태형령이 발표되어 조선인에 한해 적용되었다.
- ② 회사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 ③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었다.
- ④ 일제에 의해 조선어학회가 해산되었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281페이지, 219페이지 사례

■ 정답 및 해설 :

- ④ 일제는 중일전쟁(1937) 이후부터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선동조론 등의 구호를 내세워 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 등을 강요하였다. 한편 이 시기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을 통해 한글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 학회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해체시켰다.
- ① 일제는 1910년대 조선태형령(1912)을 제정하여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에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는데, 3·1 운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1920년에 폐지하였다. (한영 한국사 2권 205쪽)
- ② 일제는 1910년대 회사령(1910)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영 한국사 2권 208쪽)
한편, (* 지문 ②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로 볼 때) 일제는 일본의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1920년 회사의 설립·해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한영 한국사 2권 215쪽)
- ③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발행이 허가되었지만, 검열, 삭제, 정간, 압수가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한영 한국사 2권 213쪽)

정답 ④

문 1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소민이 견디기 힘든 폐단은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물
화를 모두 막아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백가지 물종이 다
한곳으로 귀속되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 ① 민호 단위의 특산물 징수방식이 토지 결수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 ② 광작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게 되었다.
- ③ 향·소·부곡민들의 처지는 농민들에 비해 열악하였다.
- ④ 광산 개발을 위해 덕대·물주 등이 등장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138페이지 1433번 사료
86페이지 844번
한영 한국사 1권 628, 629, 279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③ 주어진 사료의 ‘도고(都高)’란 조선 후기에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
하는 상인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쌀과 같은 곡물은 물론 소금 외
의 잡다한 생활용품까지 매점매석하였기 때문에, 하층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한편, 고려 시대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천민층이 아니라 양민층에 속했지만 일반 양민보다 많은 차별을
받았다.
- ① 조선 후기 시행된 대동법(1608~1708)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
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한영 기초한국사 133
쪽 1385번, 한영 한국사 1권 605, 608쪽)
- ② 조선 후기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
작할 수 있게 된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농민이 부농층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소작농민들은 소작지를 잃게 되었고, 이들은 임
노동자가 되거나 유리결식하는 유민으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 계층이 소수의 경영형 부농과 다수의 임노동자로 분화되었
다. (한영 기초한국사 136쪽 1406, 1409번, 한영 한국사 1권
620, 648쪽)
- ④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德大)가 상인 물주
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영 기초한국사 137쪽 1424번, 한영 한
국사 1권 626쪽)

정답 ③

문 17. 다음 중 고려시대 농업과 상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 ①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활성화되었다.
- ② 경시서를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 ③ 강화도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④ 발농사에서는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바뀌었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기초 한국사 81페이지 794번
한영 한국사 1권 344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문제 ② 지문은 논란이 있음(고려 경시서에도 물가 조절의 기능이 있
음)을 전제로 정답은 ③

- ③ 고려 시대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도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어 갔는데 특히,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 ① 조선 후기에는 수리시설의 발달에 힘입어, 모내기법(이앙법)이 전국
적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한영 기초한국사 136쪽 1405번, 한영 한
국사 1권 618쪽)
- ② 고려는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
하였다. (한영 기초한국사 88쪽 869번, 한영 한국사 1권 261쪽)
한편,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
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한영 기초한국사 82쪽 807
번, 한영 한국사 1권 346쪽)
- ④ 조선 후기에는 발농사에 있어 농종법이 견종법으로 개선되어 갔는데,
견종법은 농종법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장
점이 있었다. 농종법은 밭이랑에 씨를 뿌리고 고랑을 물이 빠지는 통
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견종법은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방
법을 말한다. (한영 한국사 1권 618쪽)

정답 ③

문 18. 다음 중 대한민국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한 후 소련은 남북한 자
유 총선거를 시행하자고 유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였
다.
- ② 소련은 유엔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였고 유엔 소총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 ③ 소련과 북한은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 요청을 승인하
고 38도선을 개방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활동을 지
원하였다.
- ④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
시 아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를 시행
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375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④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
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은 한
국에 임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 ① 1946년 10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한영 한국사 2권 374쪽)
- ②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이 불가능
해지자 유엔 소총회(1948.2)에서는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한영
한국사 2권 375쪽)
- ③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
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
문에 북한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영 한국
사 2권 375쪽)

정답 ④

문 19. 다음의 가상신문에서 언급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란군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자 일본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습격받은 일본인들은 살기 위해서 궁(宮)으로 들어갔는데 그 궁(宮)마저도 반란군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무정부 상태이다.

- 1882년 6월 9일-

- ① 일본군의 궁궐 침입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 ②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어 청의 종주권이 인정되었다.
- ③ 조·일 무역규칙이 체결되었다.
- ④ 청·일 양국군대의 공동 철수와 파병 시 상호 통보 사항에 합의하였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26, 41, 43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②

* 문제 : 다음의 가상신문에서 언급한 사건 “직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으로는 ①(1895년), ④(1885년)도 가능함)

- ②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년 8월)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것이 명시되었으며 이후 청 상인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됨으로써 조선에서의 일본 상인과 청 상인간의 경쟁이 가속되었다.
- ① 일본은 삼국간섭 후 세력이 약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강구하여 일본 공사 미우라의 지시를 받은 일본 자객들이 해산 위기에 있던 친일 성향의 훈련대와 합세하여 경복궁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체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1895.8). (한영 한국사 2권 79쪽)
- ③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일본과 통상장정(1876.7, 무역 규칙)을 맺어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비과세(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였다.(한영 한국사 2권 23쪽)
- ④ 갑신정변의 실패로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청과 텐진조약(1885.3)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조선에서 청일 양국이 철군할 것,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미리 상대국에 고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영 한국사 2권 52쪽)

정답 ②

문 20. 다음은 국권 피탈 과정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가) 일본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파견되어 고문통치가 시작되었다.
(나) 일본인 차관이 재정을 장악하는 차관통치가 실시되었다.
(다)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가)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다.
- ② (나)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파견되었다.
- ③ (다)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었다.
- ④ (가)-(나)-(다)의 순서로 체결되었다.

[적중 PONT!!]

■ 교재명 : 한영 한국사 2권 187페이지

■ 정답 및 해설 :

- ③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는 전략적 요충지 점령을 위해 ‘한일의정서’(1904.2)를 강요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지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가) 러일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통해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을 초빙하여 재정·외교에 관해 자문하도록 하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한영 한국사 2권 189쪽)
한편 일본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다음,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구실을 붙여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영 한국사 2권 197쪽)
- ② (나) 일제는 1907년 한일 신협약(1907.7,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각부의 차관과 관리에 일본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차관정치가 실시되었다. (한영 한국사 2권 196쪽)
한편 1905년 일제는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드는 단계로 돌입하되, 통감부를 설치하여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으로 삼기로 하였다.(한영 한국사 2권 191쪽)
- ④ (다) (1904년 2월) - (가) (1904년 8월) - (나) (1907년 7월) 순이다.

정답 ③